

부산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최진배**

요약 : 이 연구는 부산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였지만 서민금융기관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지방은행과 기업금융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금융시장이 수요자시장으로 변화되고, 경영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이 지역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그것이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신용에 접근이 제약된 지역의 영세기업과 서민가계에 대한 금융을 공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서민금융기관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기존의 막연한 인식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밀착된 경영을 하게 된 사정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어 : 서민금융기관, 정보의 비대칭성, 소규모신용, 공동유대, 지역정보

1. 서론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기업금융이 주된 관심사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금융을 논할 경우 우리는 본점과 영업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논의할 수 없다. 우선 양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역금융시장에서 그들이 점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었지만, 2002년 말 현재 지역의 대출금시장과 예금시장에서 각각

18.6%와 18.2%를 점하고 있다. 서울지역을 제외할 경우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는데, 지역의 대출금시장과 예금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은 각각 26.6%와 33.2%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질적인 측면이다. 은행이 신용도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과 가계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민가계,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¹⁾ 등 영세기업의 금융수요는 거의 대부분 서민금융기관에 의하여 충족되고 있다. 이들이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저변인 것처럼 이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도 또한 지역금융구조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역경제와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은 지역금융에 관한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사실상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금융위기는 이들에 관한 관심을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새로운 금융환경을 맞이하여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다른 금융기관 특히 은행보다 낮은 효율성과 경쟁력, 낮은 공신력 그리고 지속되는 퇴출사태 등은 서민금융기관이 이미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인식을 널리 유포시키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앞장서서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지만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이 글은 서민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지역금융시장이 초과공급상태로 전환되고, 지역금융시장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가 금융구조조정의 핵심논리로 등장하면서 지방은행과 서민금융기관 등 지역금융기관의 존립가능성 나아가 존립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민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을 규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새정부가 지방분권을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물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이 지역금융구조의 저변을 이루면서 지역경제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서민금융기관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

나로 인식될 것이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서민금융기관에 관한 기존이론을 검토한다. 서민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모두 협동조합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이론은 신용협동조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금융기관(특히 은행)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유대에 기초하여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공동유대의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그리고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규모의 경제,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 등이 중시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은 곤경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론을 중심으로 기존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먼저 지역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다음에는 지역금융시장을 기업금융시장과 가계금융시장으로 나누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특징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 이 글은 이용가능한 통계자료 이외에 심층면접을 통해 논의를 보완하였다.

2. 기존이론의 검토 - 신용협동조합이론을 중심으로

지역의 서민금융기관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성격상 모두 협동조합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론을 중심으로 기존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영역은 신용사업분야, 경제사업분야, 지역교육 및 문화분야, 지역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개발분야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민금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업분야에 논의를 한정한다. 즉 신용협동조합이 논의의 주된 관심사이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의 기반을 지역, 직장, 단체 등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지역금융문제에 관심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유대의 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을 분석한 논의는 거의 없다. 김강호·이진수(2000)은 새마을금고의 지역밀착경영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협동조합의 다른 사업분야 즉 지역교육 및 문화분야, 지역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개발분야 등에 한정하고 있다.

자조·자립·협동을 3대 운동정신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공공금융기관에 접근이 제약되어 있는 사회의 신용취약자들의 공동연대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신용협동조합은 공공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영세기업과 빈곤한 노동자 가계를 위해 설립되었다”(Westley & Shaffer, 1999).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은 은행과 다른 공식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제된 가난한 사람들과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Banerjee et al., 1994). 우리 나라의 신용협동조합도 그 목적을 상호유대를 가진 자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도모”(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하는데 두고 있다.

빈민을 포함하는 서민대중은 신용이 취약하고 특히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은행의 신용에 접근하기 어렵다.²⁾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연대를 통하여 조합원의 신용을 손쉽게 저렴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소규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신용을 평가함에 있어 지역정보와 지역적 관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Hollis & Sweetman, 1998a).³⁾ Banerjee et al.(1994)의 장기상호작용가설(long-term interaction view)에 의하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리인(=신용협동조합의 경영자)은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외부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한다. 지역민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소규모지역에서 영업하는 신용협동조합은 대출할 때 이러한 정보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조합원 상호간의 신뢰를 지켜주던 공동유대는 이제는 이완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데 거의 기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일부 논의는 그것이 아직도 이전과 같이 훌륭하게 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김준경·김철용(1992)은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신용을 평가함에 있어 조합원집단을 통하여 가용한 정보를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신용협동조합은 특정의 조합원에 의해 운영·이용됨에 따라 정보비용, 감시 및 감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사채업자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은행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조직 금융집단에 비해 거래비용 측면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김준경·김철용, 1992: 16).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동유대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그리고 거래비용) 및 그에 따른 신용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고 있다.⁴⁾ 신용협동조합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최근 소규모신용(microcredit)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

면서 이론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여 기서는 먼저 소규모신용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⁵⁾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널리 확산된 소규모신용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은 초기에는 소규모 지역에서 부(富)와 사회적 지위 등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특히 조합원은 신용협동조합 예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조합원의 중심으로 되었다.⁶⁾ 이들 조합원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합활동은 다시 상호의존성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는 차입자, 예금자 그리고 경영자 사이의 관계와 상호의존성(Hollis & Sweetman, 1998a)이라는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연대에 기초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연대는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적 담보 또는 사회적 자본으로 불리기도 한다(Hollis & Sweetman, 1998a; Besley & Coate, 1995; Bhatt & Tang, 1998; Anderson et al., 2002 참조).

공동연대에 기초한 신용협동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초래하는 문제점인 역선택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먼저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합원이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고 동질적이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이 무엇을 위해 자금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성공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선택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인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은 대출받은 조합원을 감시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이 조합의 예금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예금의 안정성 및 각 조합원의 신용의 이용가능성은 다른 조합원에게 제공된 대출금의 성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⁷⁾ 다른 한편 “모든 (조합원들은) 누가 빌렸는지 알고 있으므로 차입자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위험(그리고 기회비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Hollis & Sweetman, 1998a). 이렇게 하여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될 것이다. 나아가 채무불이행의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공동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사회적 규제(social sanctions)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그렇지만 담보가 없는 차입자를 제재할 수단을 거의 가지지 못하지만 공동유대가 강한 공동체는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입히는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Besley & Coate, 1995). 이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면 신용협동조합은 신용취약자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신용공급을 증대할 수 있게 된다(Angelini et al., 1998). 그리고 금융제도의 효율성도 제고되게 된다.⁸⁾

최근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는 약화되고 변질되고 있다. 그 결과 조합원집단을 통한 심사기능과 감시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제의 원활한 작동도 또한 제약되고 있다. 금융자유화 움직임도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일고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압력 속에서 그러한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은 그것의 성격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⁹⁾ Ralston et al.(2001)에 의하면 호주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은 이전의 사회적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상업적 이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소규모 은행과 같이 경영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금융서비스시장에서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을 위해 그리고 신속히 축소되는 소매예금시장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공격적으로 경쟁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성장기에는 은행권과의 차별화된 시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정책에 의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이익도 체고시켜왔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효율성 제고, 수익률 제고 그리고 경쟁력 강화 등을 앞세우는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의 퇴출과 합병이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은행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하나의 예이다. 신용협동조합의 발달 초기에 조합원이 대출신청자들의 대출신청서를 심사하고 대출금의 사용을 감시하고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강제한 것은 조합예금에 대한 조합원의 무한책임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기관인 예금보험제도나 안전기금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대의식이 희박지면서 그러한 기제들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들과 대출자들이 점차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는 부산지역 소재 신용협동조합 관계자의 증언은 이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다. 다음으로 공동연대의 기반이 붕괴되면 조합원은 감시할 힘을 상실하게 된다. 대출금의 연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대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사회적 규율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¹⁰⁾

공동유대가 붕괴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 및 지역밀착경영을 증시한다. 조합원의 신용을 손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조합원의 정보는 이제 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조합원과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구경(2001)은 이렇게 말한다. 지역밀착경영의 출발은 조합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조합원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조합원밀착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강구경, 2001).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합병효과를 논의하면서 Fried et al.(1999)은 은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인 것처럼 조합원에 대한 금융적 서비스의 공급은 신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Ralston et al.(2001)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은 영업의 규모와 고객/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범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밀착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덕훈 외(1993)는 지역밀착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들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을 통해서만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정보를 금융업무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고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안정적인 영업기반구축이 가능해진다”(이덕훈 외, 1993: 161)고 주장한다. 나아가 多胡秀人·八代恭一郎(1999)은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밀착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생활종합센타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¹¹⁾

조합원 및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과거의 거래기록, 주위의 평판, 부(富)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과거의 좋은 기록은 좋은 평판을 제공하는데, 평판이 높은 차입자일수록 자신의 평판(가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富)도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채무의무를 강제함에 있어 신용협동조합에 유리하다. 부(富)가 많은 차입자는 그것을 지키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富)의 크기가 작은 서민들에게 과거의 거래기록과 주위의 평판은 계량화할 수 없는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방식의 하나인 파출수납도 조합원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준다. 조합원은 예금, 대출금원리금의 상환뿐 아니라 공과금의 납부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업무를 자신의 일터를 방문하는 직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신용평가방식은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분명히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기반을 보존하고 확대해나가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금융시장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관계마케팅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고객밀착 및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협동조합에 있어 담보대출은 최근 약화된 공동유대를 대체하는 유력한 금융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담보대출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먼저 담보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¹²⁾ 담보는 건전한 차입자를 위협이 높은 차입자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데, 담보를 요구한다면 위험한 차입자

는 담보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때때로 대출자와 차입자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담보는 차입금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여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담보를 제공한 차입자는 자신의 담보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서민가계일수록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담보의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의 완화효과는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보는 상태확인비용(드는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데 드는 비용)도 크게 절감시켜준다. 담보물건을 처분함으로써 대출자는 대출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직원수가 매우 적고 직원의 전문성도 부족하여 조합원의 신용평가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대출과 예금 모두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효율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서 담보는 신용협동조합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¹³⁾

신용협동조합이 협동조합적 소유구조를 통해 비대칭적 정보와 대리인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장은 거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원 및 지역밀착경영이 중시되고 그리고 담보대출이 중요한 대출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신용협동조합이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소규모은행, 지역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 등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지역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금융시장에 은행신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현재의 곤경을 사회의 신용취약자를 위한

신용공급기관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부산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

1) 지역금융시장과 서민금융기관

여기서 서민금융기관이란 본점과 영업활동의 기반을 지역에 두고 있는 상호금융,¹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을 일컫는다. 금융위기 이전 가계대출은 주로 예금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예금은행이 가계대출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여신전문기관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영이 악화된 다수의 서민금융기관이 퇴출되고,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이 훼손되면서 가계대출금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비중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위축은 특히 현저하다. 1997년말

10조 9천억원으로 정점에 이른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00년말에는 5천6백억원으로 반감되었다. 2001년 이후 다시 증대되고는 있지만 2002년말 현재 7천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탁대출도 크게 위축되었다. 1997년 25조원을 상회하던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은 2002년말 현재 2조원대에 머물러있다.¹⁵⁾ 그러나 신탁대출도 예금은행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별 비중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대출과 신탁대출을 합한 예금은행의 비중은 46.1%(1994년말)에서 57.4%(2002년말)로 크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다.

1980년대 들어 지역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점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생겼다. 지역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점하는 비중은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1998년도에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대출금의 비중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기관 대출이 주춤하고 있는 반면 예금은행의 대출이 크게 증대되고

표 1.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현황

(단위 : %)

구분	계 ¹⁾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예금은행 ²⁾	서민금융기관 ³⁾	기타 ⁴⁾	보험기관 ⁵⁾	여신전문기관 ⁶⁾	기타 ⁷⁾
1995	100.0	28.2	27.2(20.0)	14.1	15.1	5.3	7.6
1997	100.0	30.0	26.4(20.5)	13.9	13.9	8.4	7.3
1999	100.0	39.8	23.3(19.7)	6.5	12.2	8.4	9.8
2001	100.0	51.6	15.2(13.2)	1.0	10.7	14.4	7.0
2002	100.0	56.8	13.5(11.7)	0.6	9.9	14.6	4.7

주 : 1) 가계에 대한 대출, 현금 및 카드론으로 개인사업자금 제외, 주택자금 포함 2) 일반은행, 특수은행 포괄 3)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포괄. 단 () 내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점유율 4) 은행신탁 및 우체국 예금을 포괄 5)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을 포괄 6) 신용카드회사 및 할부금융회사를 포괄 7)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저당유동화회사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표 2. 지역금융시장에서 지역비통화금융기관의 비중 추이(%)

구 분	1995		1997		1999		2001		2002	
	예수금	대출금	예수금	대출금	예수금	대출금	예수금	대출금	예수금	대출금
전 국	17.0	19.6	16.7	19.5	15.7	20.0	16.3	18.9	18.2	18.6
서울제외	28.7	33.1	28.4	33.5	30.2	31.6	29.3	28.4	33.2	26.6
부 산	18.2	25.3	17.4	24.2	18.6	22.4	18.6	18.7	21.9	18.7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외는 달리 지역예수금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이 점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전국적인 추세와는 달리 점유율의 상승과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대출금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점하는 비중은 서울지역을 제외하면 2002년 현재 26.6%를 기록하고 있다.¹⁶⁾ 서민금융기관의 총대출에서 기업대출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지역가계금융시장에서 그들이 점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기관이 부산지역금융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은 결코 낮지 않다. 대출금시장의 경우 예금

은행의 점유율 증가에 기인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하락하였지만 2002년말 현재 18.7%를 점하고 있다.¹⁷⁾ 이외는 달리 예수금시장에서 점하는 서민금융기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말 현재 21.9%를 점하고 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가격경쟁력을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다. 수신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약간 높은데다 2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올해 말까지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예금과 같은 수준에서 예금이 보장되고 있다.¹⁸⁾ 서민금융기관 중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제일 높으며 상호금융의 그것이 제일 낮다. 대출이자율도 상호저축은행이 제일 높고 상호금융이 제일 낮다.

표 3. 지역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이자율 현황(%)

구 분	예금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수신 ¹⁾	대출 ²⁾	수신 ³⁾	대출	수신 ³⁾	대출	수신 ³⁾	대출 ⁴⁾
1997	10.64	12.30	10.71	13.34	11.47	13.97	13.05	16.63
1999	7.94	10.85	8.59	12.28	8.88	13.21	10.61	18.02
2001	5.79	8.23	6.06	9.43	6.65	9.99	7.45	13.89
2002	4.95	7.21	5.08	7.68	5.62	8.82	6.01	13.32

주 : 1)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연도계수는 월자금의 단순평균금리. 월중이자지급액(기간보정후)을 예금평균으로 나누어 연리로 환산(1998년부터 편제) 2) 신규취급액기준 평균금리 1년-2년미만 3)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정기예탁금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로 1997년 8월부터 편제. 연도계수는 월자료의 단순평균금리 4) 계약금액내 대출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 서민금융기관의 기업금융

2000년 현재 중소기업은 전국 총사업체 수 가운데 9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종업원 9인 이하의 소상공인만 해도 89.0%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업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계속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국민경제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외부금융을 주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무투명성이 낮은 많은 기업들은 은행신용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방은행은 이들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관계적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 부산은행은 소규모기업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형은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의존율이 85%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¹⁹⁾ 이렇게 부산은행은 한계차입자의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소기업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은행신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않아 최소한의 재무투명성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용평점제도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행은 각종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비재무적 정보의 활용을 일정하게 제약한다. 은행은 소규모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하다. 윌리엄슨형 조직적 불경제(Williamson-type organizational diseconomies)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2003년 6월부터 업무처리혁신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모든 업무의 전산화와 집중화를 겨냥하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은행에서는 은행 내 담보평가 전문가 25명이 전국 649개 지점의 담보평가를 담당하게 되었다.²⁰⁾ 그 결과 우리은행의 금융거래는 거래적 금융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대다수 은행은 기업금융을 특정지점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기업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것이다. 이상의 사정은 서민금융기관에게 신용이 취약한 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그리하여 지역밀착경영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이 부산지역의 기업금융시장에서 접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매우 낮다.²¹⁾ 그렇지만 금융기관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2002년말 현재 법인대출 건수는 회

표 4.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업원 구성비 현황(2000년, %)

구	분	전체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체수	전국	100.0	97.0 (89.0)	2.7	99.7	0.3
	부산	100.0	97.4 (90.1)	2.3	99.7	0.3
종업원수	전국	100.0	62.6 (42.5)	21.3	83.9	16.1
	부산	100.0	67.8 (47.6)	20.6	88.4	11.6

주 : 1) () 내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 종업원 9인 이하 기업, 나머지는 4인 이하 기업임 3) 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49인 이하, 중소기업은 299인 이하 기업임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법인 421건을 포함하여 모두 500건으로 총건수(63,154건)의 0.8%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대출 중에는 자영업자(병의원 포함)에 대한 대출(1,820건),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127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하면 기업대출 건수는 모두 2,447건으로 전체에서 3.9%를 점하게 된다. 금액별로 보면 총 1조 9,086억원 중 법인대출이 5.7%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과 개인기업에 대한 대출을 합하면 그 비중은 12.6%에 이른다. 상호금융의 기업대출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월등 높고 규모도 크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대출에서 기업대출(기업자금+기업예탁자금)이 점하는 비중은 2001년말 현재 1.2%를 기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새마을금고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산지역의 전체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이에 방문조사한 부산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이 3,500억원을 상회하는 부산의 상위권 상호저축은행이며 5억원 이상 여신이 총대출건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금액면에서 볼 때 총여신에서 점하는 비중은 61.6%이나 된다. 특히 20억원 이상의 거액여신의 비

중이 높는데 총건수면에서는 0.3%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에서는 38.2%나 된다. 이 상호저축은행의 거액여신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은 소규모 아파트 건설이나 상가개발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²²⁾ 따라서 이러한 여신은 기업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기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²³⁾ 그렇지만 지역기업 특히 신용도가 낮아 은행신용에 접근이 곤란한 영세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만약 상호저축은행의 총대출 중에서 기업대출의 비중이 표 9에서 가정한대로 20%가 아니라 60%를 상회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신용협동조합의 기업대출분을 감안한다면 지역기업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점하는 비중은 5%를 상회할 것이다.

지역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이 한계차입자의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서민금융기관의 주된 거래기업은 신용이 취약한 소기업 등에 한정되고 있다.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며 서민금융기관이 은행신용에 접근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건설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총대출에서 1억원 이상의 거액여신이 점하는 비중은 매우 높는데, 그것의 규모

표 5.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금액별 여신현황(2002년말 현재)

구 분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	합 계
금액(백만원)	73,350 (38.4)	16,921 (8.9)	27,640 (14.5)	61,907 (32.4)	11,172 (5.8)	190,990 (100.0)
건수(건)	6,374 (99.0)	23 (0.4)	20 (0.3)	20 (0.3)	2 (0.0)	6,439 (100.0)

주 : () 내는 구성비(%)
 자료 : 부산상호저축은행

로 보아 이 중 상당한 부분이 기업여신일 것으로 판단된다. 거액여신의 비중이 특히 높은 것은 상호저축은행이다. 그러나 다른 서민금융기관도 총대출에서 거액여신이 점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먼저 상호금융의 규모별 대출현황을 보면 총대출에서 1억원 이상 대출금의 비중은 40.0%이다. 10억원 이상의 대출금만 해도 6.6%를 점하고 있어 상호금융이 상당한 금액을 거액여신에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거액여신이 점하는 비중은 각각 22.4%와 24.7%로 상호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규모에 비하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상호금융의 조합당 평균대출액은 1,363.9억원이지만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79.7억원과 98.1억원으로 상호금융의 1/20~1/15에 불과하다.

거액여신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들은 위험을 분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조합당 평균대출액이 79.7억원과 98.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액여신이 1건만 연체되어도 연체율은 4.1%(=1억원 이상 대출금의 건당 평균 대출액 3.3억원/조합당 평균대출액 79.7억원: 신용협동조합)와 1.8%(=1억원 이상 대출금의 건당 평균 대출액 1.8억원/조합당 평균

대출액 98.1억원: 새마을금고)씩 상승하게 된다. 총대출을 기준으로 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과는 달리 규모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이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당 평균대출건수는 550건이고 새마을금고의 그것은 716건인데 이 중 한 건만 연체되어도 연체율은 0.18%와 0.14%씩 상승하게 된다.

기업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들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이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 당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은 특히 협소하다. 그들의 영업구역이 동(洞)단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산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외부의 사소한 충격에도 자산위험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합병은 영업구역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최근의 합병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저축기관으로 성장·발전해 갔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Hollis & Sweetman, 1998).

3) 서민금융기관의 가계금융

Stanton(2002)에 의하면 다수의 소규모 대출의 경우 신용평점제도의 도입이 유리한데 가계금융과 같이 대출의 성격과 위험도가 유사한 대출

표 6. 부산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규모별 현황(2002년말 현재, %)

구분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건당평균 대출액 ¹⁾	조합당 평균 대출액 ²⁾
구성비	1.1 (1.1)	2.5 (3.6)	16.4 (20.0)	16.4 (36.4)	23.6 (60.0)	18.6 (78.6)	7.6 (86.2)	7.0 (93.2)	6.3 (99.5)	0.3 (99.8)	30.2 백만원	1363.9 억원

주 : 1) 총대출액 1조 9,09.5억원을 총 건수 63,154나눈 값 2) 총대출액을 조합수(14개)로 나눈 값 3) () 내는 누적비중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지역본부

표 7. 부산지역 신용협동조합의 금액별 대출금 현황(2002년말)

구분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이상	계	조합당 평균
금액(억원)	437.7 (8.7)	734.6 (14.6)	2,122.2 (42.3)	602.5 (12.0)	410.8 (8.2)	488.3 (9.7)	223.7 (4.5)	5,019.8 (100.0)	79.7 ³⁾
건수	16,807 (48.5)	7,981 (23.0)	8,847 (25.5)	708 (2.0)	204 (0.6)	127 (0.4)	12 (0.0)	34,686 (100.0)	550 ⁴⁾
건당금액(천원)	2,604	9,205	23,988	85,093	201,371	384,499	1,853,850	14,472	

주 : 1) () 내는 구성비(%) 2) 2억원 이하의 건당 금액은 2억원 이하이어야 하나 원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대출액 4) 대출 건수

자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표 8.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대출금의 규모별 구성비 현황(2003년 3월말, %)

구분	합계	3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평균 대출금
금액	100.0 (100.0)	2.7 (2.7)	4.2 (6.9)	9.3 (16.2)	28.9 (45.1)	14.8 (59.9)	15.4 (75.3)	18.0 (93.3)	6.2 (99.5)	98.1억원 ¹⁾
건수(건)	100.0 (100.0)	28.4 (28.4)	15.9 (44.3)	19.5 (63.8)	25.2 (89.0)	5.6 (94.6)	3.3 (97.9)	1.6 (99.5)	0.1 (99.6)	1,370만원 ²⁾

주 : 1) 2003년 3월말 현재 총대출금 1조 9,728억원을 조합수 201로 나눈 값으로 금고당 평균대출금을 나타낸다 2) 건당 대출금액을 나타낸다 3) () 내는 누적비중임

자료 :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

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현재 시중은행 지방은행 모두 가계대출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계는 은행신용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금융업에 있어 전산화·정보화의 진전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가 집중하고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통해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신용불량여부를 알 수 있다.²⁴⁾ 이 자체만으로도 신용이 좋지 않은 가계 등은 은행신용에 접근할 수 없는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성장은 신용취약자의 은행신용접근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크레

딧 뷰로(credit bureau: CB)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²⁵⁾

은행의 이러한 금융방식은 서민금융기관과 일정한 차별성을 낳는다. 무엇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고 가격경쟁력도 열세이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은 엄격한 신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서민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할 때 신용평점표에 반영할 수 없는 계량화가 곤란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만큼 서민금융기관은 더욱 더 거래자를 신용이 취약한 계층에 한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 은행 특히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하려는 지방은행이 다양한 유형의 신용평가제도를 활용하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반

면 한계적 차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임을 명백히 할 수 없는 것 자체가(지역금융시장의) 격심한 경쟁상태를 보여준다”는 어느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호소는 서민금융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1) 대출

1998년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부산지역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유율 상승은 가계대출에서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2002년말 현재 지역가계대출시장에서 시중은행이 점하는 비중은 49.1%이다. 시중은행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기관은 서민금융기관이다. 지역가계대출시장에서 그것이 점하는 비중은 2002년말 현재 31.5%로 지방은행의 9.9%보다 월등히 높다.

서민금융기관은 총대출금의 60~80% 정도를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로 운용하고 있다. 먼저 상호금융의 경우를 보면 2002년말 현재 3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이 총대출금의 20.0%를 점유

하고 있다. 범위를 5천만원 이하로 넓힐 경우 점유율은 36.4%로 증가되며, 1억원 이하의 점유율은 60.0%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보다 소액대출금의 비중이 더 높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02년말 현재 1천만원 이하의 여신이 전체여신의 23.3%,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여신이 42.3%, 그리고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여신이 12.0%를 점유하고 있다. 대출금 규모의 영세성은 건수별 현황을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대출금건수가 전체 대출금건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48.5%이며, 5천만원 이하로 그 규모를 확대하면 등 비율은 97.0%에 이른다. 소규모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당 평균대출금 규모도 작아 2002년말 현재 그것은 1천5백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은 22.4%에 이르고 있지만 건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점하는 비중은 16.2%, 5천만원 이하는 59.9%를 기록하고 있다. 대출금 규모를 건수를 기준으로

표 9. 2002년도 부산지역 가계대출시장의 구성비

	은 행					서민금융기관 ¹⁾	계
	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금액	138,934	99,654	15,478	20,130	3,673	63,963	202,897
구성비(%)	68.5	49.1	7.6	9.9	1.8	31.5	100.0

주 : 1) 상호금융 16,694억원(총대출금에서 법인기업대출금, 개인기업대출금, 자영업대출금을 제외하였음), 신용협동조합 5,020억원(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신용협동조합 총대출금임. 2002년 12월말), 새마을금고 19,847억원(총대출금에서 기업자금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임. 2003년 3월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22,402억원(2002년 12월말 현재 총대출금은 28,002억원이다.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기업대출금과 가계대출금을 구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부득히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이 때 지역농협 총대출금에서 가계대출금의 점유비가 87%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그것을 80%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얻은 수치가 22,402억원임) 2) 중금사, 투신사, 은행신탁, 생명보험회사, 우체국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지역본부(단, 신용협동조합은 중앙회)

하여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가 63.8%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면 그 비중은 94.6%,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97.9%로 점유율이 급증한다. 서민금융기관 특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소규모 가계자금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서민금융기관의 거래자들은 은행에서 차입할 때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이들이 은행신용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은 ▽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5억원 이하 대출이 총대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38.4%로 낮지만, 총건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99.0%이다. 5억원 이하의 대출금이 건수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2000년부터 본격화된 소액대출에 기인한다. 연리 36~60%의 고리로 알려져 있는 소액대출의 증가는 대출브로커를 통한 무리한 거래자 확대,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 등에서 보듯이 정상적으로 금융기관거래가 어려운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사람들까지 거래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진행되었다.²⁶⁾ 고위험-고수익전략은 다수의 부실채권을 낳게 마련이다. 2003년 3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액은 20조 2,325억원으로 이 중 21.1%인 4조 2,817억원이 1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이다.²⁷⁾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사정은 전년말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호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금리 소액대출이 지적되고 있다. 공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2년 4월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시켜주었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그것이 공금융

기관과 사금융의 경계선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사정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먼저 정부는 2001년 5월부터 사금융의 심각한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상호저축은행이 소액대출을 늘리도록 권장하였으며, 동년 9월에는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50%로 낮추었다. 종전에는 담보대출에만 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은 2003년 3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를 자유화하였는데 이 조치를 취한 목적의 하나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 대부업자 등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금융감독원, 2003 c). 한편 정형권(2003)은 상호저축은행이 고금리소액대출시장의 주요 대부업자의 하나라는 전제하에서 신용평점제도가 소액대출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잠재적 차입자를 둘러싸고 사금융과 경쟁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지위를 잘 보여준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성의 결여와 그에 따른 일부 경영진의 연고대출에의 높은 의존도²⁹⁾ 1인 또는 소수에 의해 소유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소유구조의 비민주성과 그에 따른 불합리한 지배구조, 예금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취하는 반면 대주주기업의 납품기업을 핵심적인 대출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공공적 성격의 결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부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서민금융기관과는 달리 조합원 및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 용이하면서도 저렴하게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할 수 없다는 조직상의 어려움을 반영하기도 하다.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법인기업에 대한 여신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에 중요한 역할

표 10. 상호저축은행 연체금액과 연체율 현황

구 분	2001년 12월말	2002년 6월말	2002년 12월말	2003년 3월말
연체금액(조원)	3.5	3.2	3.8	4.3
연체율(%)	22.1	18.6	19.7	21.4

자료 : 금융감독원(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9일)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경제의 희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³⁰⁾

(2) 예수금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에서 소액예금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먼저 상호금융의 수신구조를 보면 2002년말 현재 전체 예수금의 절반 정도가 2천만원 이하이며 5천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면 그 비중은 89.3%에 이른다. 이에 반해 1억원 이상의 예금은 6.5%에 불과하다. 소액예수금 중심의 수신구조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보다 명백하다. 신용협동조합의 금액별 수신구조를 보면 2천만원 이하의 예수금이 전체 예수금의 88.1%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5천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면 그 비율은 94.9%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부산 지역 전체의 수신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성격상 신용협동조합과 유사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8 상호저축은행을 예로 하여 보면 총예금(2,900억원, 2002년말 현재)의 16.8%인 488억원이 5천만원을 초

과하는 예금이며 건수면에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180건으로 총건수(12,000건)의 1.5%에 불과하다.³¹⁾

상호저축은행 예금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감시할 유인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을 찾아 예금을 하고 있다.³²⁾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시장이 수요자시장으로 전환된 이후 정상적인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로 예금을 유인한 다음 위험이 높은 그렇지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상호저축은행이 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표 11. 부산지역 상호금융의 수신규모별 현황(2002년말 현재, %)

구 분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합계	조합당 평균예금 ¹⁾
구성비	2.7 (2.7)	11.2 (13.9)	11.5 (25.4)	24.0 (49.4)	34.6 (84.0)	5.3 (89.3)	4.2 (93.5)	5.4 (98.9)	0.8 (99.7)	0.2 (99.9)	100.0 (100.0)	1849.5억원

주 : 1) 총예금 2조 5893억원을 조합수(14개)로 나눈 값 2) () 내는 누적비율

자료 :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표 12. 부산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수신금액별 현황(2002년 12월말)

구 분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이상	계
금액(억원)	9,091.4	701.9	256.6	115.0	92.6	63.4	10,321.0
구좌당금액(천원)	2,210.3	32,062.8	73,096.3	129,220.9	308,753.8	2,119,425.1	2,518.3
구성비(%)	88.1	6.8	2.5	1.1	0.9	0.6	100.0

자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가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강력한 감독과 검사권을 발동하여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자와 상호저축은행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영상태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이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자금운용의 특징

면담에 응한 신용협동조합 및 지역농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은 기업금융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은행권과 경쟁이 심하여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은(즉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을 상대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대출(특히 거액대출)의 위험분산이 곤란하다는 점과 함께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기업금융분야에서 은행의 차입자와 서민금융기관의 차입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제약(특히 차입자의 높은 신용위험과 위험분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을 취급할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불리한 대출조건을 부과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은 예금은행의 그것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신용에 의존한다는 것은 차입자가 은행신

용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을 또는 그들의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이 예금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자신의 차입자에 대해 독점력을 행사하여 독점적 지대를 수취한다는 것을 함의한다.³³⁾ 이렇게 서민금융기관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신용에 접근하는 차입자가 은행신용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은 거액일수록 부동산담보대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낮은 신용을 담보로 강화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³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은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담보가치평가업무를 본점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본점의 지역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은행(특히 시중은행)은 신용평가를 위해 비재무적 정보 또는 계량화하기 곤란한 정보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차입자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지역경제에 밀착하여 경영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에 있어 부동산담보대출이 유리한 자금운용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지역농협 관계자가 증언하듯이 서민금융기관은 부동산의 입지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과거의 거래기록에 나타나는 차입자의 신용과 주변의 평판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총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접하는 비중은 70-90%로 매우 높다. 취약한 차입자의 신용을 강화할 필요가 높기 때문이지만

담보대출은 연대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서민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에의 의존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담보를 요구하면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는 신용대출을 선호하게 되는데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부산은행은 다양한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³⁵⁾ 그 결과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이 위축될 뿐 아니라 차입자의 신용도도 더욱 저하하게 된다. 다른 한편 담보물건의 가격과 유동성은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서민금융기관은 외부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게 된다.

담보대출방식은 서민금융기관이 영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 역할도 수행한다. 서민금융기관은 신용을 공여하면서 대체로 은행권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³⁶⁾ ㄱ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70%(은행권은 60%)인데, ㄴ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도 담보인정비율을 은행권보다 높게 유지하면 자금운용이 다소 용이해진다고 말한다. 담보인정비율을 80-90%로 매우 높게 유지하는 ㄱ 지역농협의 예대율은 2003년 3월말 현재 7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담보인정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다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2년도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인정비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도록 규제한 것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신용위험이 상승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담보인정비율을 높일 경우 신용취약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신용이 저하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해줄 때 원금의 일정비율을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차입자는 서민금융기관에 접근하여 보다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려 할 것이다.

서민금융기관은 파출수납을 하고 일일상환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업무는 서민금융기관이 조합원 및 지역밀착경영을 심화하고 확대함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들 업무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먼저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서 현금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거래자가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고 있는데, 우량거래자가 우선적으로 거래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은 영업에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³⁷⁾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경쟁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서민금융기관은 카드사업 그리고 특히 밴(van)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에 가입함으로써 서비스공급 능력이 많이 확충되고 있다.³⁸⁾ 그러나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유효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일일상환대출은 과거 재래시장상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시장상인의 신용도도 하락하면서 일일상환대출의 매력도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회가 공신력의 훼손을 우려하여 일일상환대출의 취급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면서 일일상환대출금의 규모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공신력이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의 일일상환대출시장에의 폭넓은 진출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일일상환대출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³⁹⁾ 새마을금고의 일일상환대출 취급규모는 총대출금 약 2조원(2003년 3월 현재) 중 36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상호저축은행의 일일상환대출은 최근 들어 크게 신장되고 있는데 일일상환대출이 상호저축은행 총대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2002년말 현재 13.5%로 2001년말(8.4%)에 비해 5.1% 포인트나 상승하였다(금융감독원 2003 a).

물적담보가 없는 경우 최근 2-3년간 조합원의 거래실적을 중시하는데, 과거기록이 좋으면 이자율 인하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보증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자의 신용도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무보증비율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합원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등의 소득이 경기에 민감하여 무보증대출의 경우 경기가 위축되면 부실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B 신용협동조합 관계자의 증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영업환경으로 하는 Γ새마을금고와 B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은 2002년말 현재 각각 29.5%와 42.3%에 불과하다.

5)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신용취약자는 서민금융기관의 주된 영업기반이다. 이는 최근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2002년 들어 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11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이전의 월 6조원대에서 2조원 대로 크게 둔화되었다.⁴⁰⁾ 한국은행(2003 a)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에 대한 대출이 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반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가계소액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한국은행, 2003 b). 부산지역 상호금융의 경우 2003년 들어 예대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Γ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은행권이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자금공급을 억제하면 자금공급이 활기를 띤다고 말한다.

서민금융기관의 금액별 대출 및 예수금 현황에는 서민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잘 나타나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건당

표 13. 부산지역 몇몇 서민금융기관의 비교(2002년말 현재)

	영업환경	규모(억원)			대출금규모별분포 ³⁾ (%)			
		자산	대출 ¹⁾	예금 ²⁾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³⁾	1억원 이하 ⁴⁾	1억원 초과
Γ신협	일반주택지, 재래상권 발달	500	266 (66.5)	400 (94.5)	24.4 (74.2)	38.8 (21.7)	16.4 (3.0)	20.1 (1.3)
B신협	저소득층 밀집, 재래시장 포함	505	186 (42.3)	440 (99.5)	26.9 (74.8)	38.7 (21.3)	12.4 (2.4)	21.1 (1.5)
Λ신협	고급주택지, 고급음식점 포함	730	161 (30.0)	536 (87.7)	4.3 (43.7)	18.0 (38.1)	10.4 (6.6)	67.1 (11.6)
Γ새마을 금고	저소득층 밀집, 재래시장 발달	300	76 (29.5)	258 (57.0)	11.3 (43.8)	68.3 (52.2)	11.9 (3.2)	8.5 (0.4)

주 : 1) () 내는 예대율임 2) () 내는 2천만원 이하 예금의 비중(금액기준)임 3) () 내는 건수비중임
 4) 5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는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를 의미한다
 자료 : 해당 금융기관

5천만원 이하가 총대출금의 60%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것은 95%를 상회한다. 예수금의 경우에도 상당량의 예금이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혜택을 겨냥하고 있는데, 비과세제도는 서민가계의 재산증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 가운데에는 소규모예금거래만 가능한 조합원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⁴¹⁾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나 자체 기구가 5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은 은행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퇴출이 일상화되면서 일부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에서 무담보대출이 점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신용협동조합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조합원의 공동유대가 이완되고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조합원의 신용평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담보대출은 당면문제를 완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여신을 확대해가면서 서민금융기관은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대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소규모지역에서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과거 거래기록, 주변의 평판 등을 평가함에 있어 유리하다. 최근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량조합원과의 거래가 위축되고 조합원의 신용도가 악화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은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원 및 지역밀착 경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합원의 정보에 기

초한 영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금융시장(특히 가계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지위는 거래대상이나 은행권과의 경쟁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은 대금업자와 소액대출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지역금융시장의 최하층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상호금융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보다는 상층에 위치하고 있다. 대출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출이자율(<표 3> 참조) 수준에서도 거래대상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우량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계대출금리가 최근 하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호금융이 도시소계조합을 중심으로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다는 한국은행(2003 d)의 지적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4. 결 론

서민금융기관의 차입자 동향에서 포획으로의 이동(flight to captivity)현상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⁴²⁾ 이에 반발하여 일부 서민금융기관은 질(즉 높은 신용도)로의 이동(flight to quality)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금운용상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개별 조합은 각 중앙회에 자금을 예탁하고 있으며, 중앙회는 운용 수익금을 개별 조합에게 배분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의 자금운용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별조합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개별조합들은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등 직접 여유자금을 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조합의 사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두 가지 사례는 이러한 시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차입자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우량차입자에 거래를 한정하면서 2003년 3월 현재 1년만기 정기에금의 금리는 4.8%수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하 6.5%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조달자금총액에서 저원가성자금에 접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새마을금고는 은행권과 힘겨운 경쟁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³⁾ 2002년말 현재 이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ㄴ신용협동조합의 2003년 3월 현재 조달금리는 5.0%정도이지만 중앙회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4.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평균대출금리는 7.5%이고 수익증권 수익률은 각각 7.0%(회사채), -3.0%(주식)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출이 가장 안정적인 자금운용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운용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신용협동조합은 자산의 60%정도를 직접금융시장에 운용하고 있다. 개별 조합단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금운용은 운용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직원 한 두명의 자금운용능력에 의해 조합의 경영성과가 좌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중앙회를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던지 개별적으로 운용하던지 개별 조합이 시장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공급자 지배적인 시장에서 수요자 지배적인 시장으로 일변하고 우량차입자의 일탈이 현저해졌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이 당면하는 신용위험은 갑자기 그리고 크게 증대되고 그 결과 경영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의 도전은 서민금융기

관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더 이상 공동유대에 기초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담보대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은행권이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신용으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자를 확대하는데 있어 한계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나아가 거래자의 신용상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신의 영업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조합원과 지역밀착경영을 일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신용취약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급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정부는 퇴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⁴⁴⁾ 퇴출보다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그리고 특히 자산구성의 다변화와 위험분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금융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금융과 같이 보다 넓은 영업구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본소가 다수의 지소를 거느리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서민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와 영세상공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것의 경영정상화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는 금융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아직도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주

- 1)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9인 이하의 기업이다.
- 2) Schreiner & Woller(2003)는 “접근은 효율적인 공급자의 장기비용을 보상하며 사용자에게 대한 서비스의 가치보다는 낮은 가격에서의 공급을 함의한다”고 말한다. 즉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공급자가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매우 커서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려 하지만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차입에 대한 대가가 차입한 자본이 창출하는 가치를 상회하기 때문에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대출자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기보다는 신용을 할당해야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차입자가 시장 균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도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 3)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의 중요성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지역금융시장이 중심금융시장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게 된다는 지역금융시장이론에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지역금융시장이 고립될 경우 지역의 특정 계층은 주로 지역금융기관의 신용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이론은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행태를 분석하는 논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금융시장이론에 대한 개관으로는 박원석(1997), 최진배(2003) 참조.
- 4) 대출과정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비용은 높은 이자율, 시장분할 그리고 신용할당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요체이다. Ghatak(1999) 참조.
- 5) 소규모신용을 취급하는 기관은 사회연대은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국내의 설명으로는 이종수(2002) 참조.
- 6)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잘 나타나듯이 부자는 무한책임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조합원이 되지 않았으며 빈민들은 기존 조합원들이 배제하였다. Hollis & Sweetman(1998a).
- 7) Banerjee et al.(1994)와 Westley & Shaffer(1999)는 이를 동료집단감시시설(peer monitoring view)이라 한다.
- 8) 한편 일부 논의는 서민금융기관이 경제발전에도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신용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특정 계층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Hollis & Sweetman(1998a) 참조.
- 9) Hollis & Sweetman(1998b)는 19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합병운동이 전개된 이후 신용협동조합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지역적 성격은 신용협동조합이 지역차입자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증가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Ralston et al.(2001)은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추진하는 힘으로 자기자본 비율 충실화 요구(상호금융기관은 증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이 중요한 선택지로 된다.), 경영 규모 확대, 보다 넓은 분배망(즉 지점망의 확산), 신용협동조합간 연계구축 등을 들고 있다.
- 10) 어느 신용협동조합은 상호보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신용이 좋지 않은 조합원 상호간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하여 연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합원간의 연대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사회적 규율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 11) 생활종합센타의 기본개념은 금융기관과 개인고객간에 쌓여진 정보네트워크 속에 기업(부동산회사, 결혼식장, 병원 등)을 포함시켜 법인과 개인의 네트워크 중심에 금융기관이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多胡秀人·八代恭一郎(1999) 참조: 최근 우리 나라의 일부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12) 이하의 서술은 Ghatak & Guinnane(1999)에 의

존하였다.

- 13)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문제는 물론 은행에게도 중요하다. 그러나 은행은 잠재적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할 전문인력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과 예금취급에 따른 규모의 경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14) 상호금융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을 가리킨다. 그러나 부산지역을 분석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14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불린다.
- 15) 예금취급기관의 기타에는 우체국대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의 비중은 미미하다.
- 16) 자세한 설명은 최진배(2002) 참조.
- 17) 이 비중은 지방은행의 그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진배(2003)의 표 7과 이 글의 표 9를 종합해보면 지역대출금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의 비중은 17.9%이지만 지방은행의 그것은 16.8%이다.
- 18)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구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안전기금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장하고 있다.
- 19) 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진배(2003) 참조.
- 20) 우리은행의 업무처리혁신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경제신문(2003년 7월 24일) 참조. 그리고 조직적 불경제에 대한 설명은 최진배(2003) 참조.
- 21) 최진배(2003) 참조.
- 22)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2003 a)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2002년 상반기 영업실적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일일상환대출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 23) 예컨대 대기업이 대주주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업의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2002년말 현재 총대출금 중에서 대주주의 납품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이 접하는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전세 및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이 15%,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5% 그리고 최근에는 취급하지 않는 부동산담보대출이 15%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대출은 반드시 신용취약자에 대한 대출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24) 신용정보 규약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내용은 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현금서비스 현황 등 5개 항목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등록하는 내용은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의 3개 항목이다.
- 25) C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2003년 8월 7일) 참조.
- 26) 예컨대 부산지역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면에서 부산 최대이며 전국 3위의 대형 상호저축은행이다.)은 '한마음 크린튼'이라는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20대 신용불량자들에게 1년간 최고 2백만원까지 대출하고 있는데, 차입하려는 사람은 구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르바이트신청서류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 상품은 신용불량자뿐 아니라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었어도 6개월~2년동안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해제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2002년 4월 18일) 참조.
- 27) 부산의 B상호저축은행은 전체 53명의 직원 중 28.3%에 해당하는 15명이 채권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연체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 28) 정부는 새로운 명칭에 상응하는 공신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 강화조치를 취하였는데 건전성지도비율 및 적기시정조치기준 강화, 대손충

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경영공시기간의 단축 및 공시내용 강화 그리고 부실채권비율 감축지도 등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2002) 참조.

- 29) 비 상호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총대출의 80%정도를 연고대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 30) 금융감독원은 2003년 3월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방법서를 개정하였다. 이로써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차입하여 대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청은 2003년 하반기부터 상호저축은행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회사를 차입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수지개선과 함께 지역밀착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2003 d) 참조.
- 31) 내부 자료에 의함.
- 32) 최근 부실화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계좌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동 저축은행에 가족명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분산예치 방법은 다양하였는데, 이 중 일부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여러 예금이자를 한 계좌로 모으는 경우, 여러 예금이 동일한 인감을 사용한 경우, 여러 계좌의 비밀번호를 한 사람이 관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000의 인출금지, 만기시 000원으로 예금자동이체로 제한을 가한 계좌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로 인정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결과 200여명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예금을 분산 예치한 것은 상호저축은행이 약속한 높은 예금이자 혜택은 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2003년 5월 14일) 참조.
- 33) 자세한 설명은 최진배(2002) 참조.
- 34)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Avery et al.(1998) 참조. 한편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영업하는 새마을금고는 무허가주택이 많아 대출확대에 어려

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는 신용강화수단으로서 담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 35) 부산은행은 신용평점제도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승인대출제도(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제도로 급여이체, 공과금자동납부실적 등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된다.), 마이버 터주대감대출제도(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제도로 서민금융기관의 잠재적 차입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 36) 담보인정비율이란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담보물의 가치 중 담보가능금액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가리킨다.
- 37) 그 결과 파출수납과 일일상환대출을 이용하는 거래자들의 신용도도 저하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잘 발달된 재래시장을 옆에 두고 있지만 예대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는 차입을 원하는 시장상인들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
- 38) 예컨대 신용협동조합은 2002년 2월 금융결제원에 가입하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CMS업무, CD공동망, 타행환, 지로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금잔액과 거래내역조회, 자동이체 등에 있어 조합원의 편리성도 제고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2002).
- 39) 상호저축은행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는 달리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를 적극 포섭하고 있으며 이자율도 매우 높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3) 참조.
- 40)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 대책에는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주택가격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2003) 참조.
- 41)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김강호·이진수(2000)에 의하면 1999년말 현재 연간수입 4천만원 이상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에서 점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1-2천만원 이하의 그것은 70%로 영세가계가 조

합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산시는 부산시와 지역경제의 규모, 경제구조 그리고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위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영세가계의 예수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42) 예컨대 한국은행(2003 c)에 의하면 예금은행이 서울보다는 지방의 가계대출확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영업기업이 자금조달원으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서민금융기관의 주된 거래처인데 이렇게 거래처를 옮기게 되면 서민금융기관의 거래처의 신용등급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포획으로의 이동에 대한 설명은 Dell’Ariccia & Marquez(2001) 참조.
- 43) 이는 (보통예탁금+자립예탁금)/총예금로 나타내는데, 부산지역 새마을금고의 이 비율은 2003년 3월말 현재 6.5%이다. 이에 반해 은행의 그것은 30-40%를 유지하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최진배(2003) 참조.
- 44)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1998년~2002년 사이에 구조조정된 444개 조합은 인가취소 2개, 파산 201개, 해산 134개, 합병 105개(9개가 신설되어 같은 기간에 감소된 신용협동조합의 수는 433개이다.)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퇴출이 구조조정의 주된 형태이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3) 참조. 신용협동조합이 환경변화에 매우 피동적으로 대응해왔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영범(1995) 참조.
- 45) 예컨대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현황을 보면 2002년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3.9%이며 순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대손충당금)/(총여신-대손충당금))은 2.0%이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의 그것은 7.9%와 3%이며, 상호저축은행의 그것은 14.8%와 9.3%이다. 금융감독원(2003 b) 참조.

참 고 문 헌

- 강구경, 2001, “조합의 데이터베이스마케팅 전략,”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연구 20(1), pp.39-61.
- 금융감독원, 2003 a, 상호저축은행 FY’02 상반기 영업 실적(잠정), 보도자료(2003년 1월 13일).
- 금융감독원, 2003 b, 2002년말 현재 금융회사의 여신 건전성 현황, 보도자료(2003년 3월 17일).
- 금융감독원, 2003 c,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자유화, 보도자료(2003년 3월 26일).
- 금융감독원, 2003 d,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보도자료(2003년 3월 28일).
- 금융감독위원회, 2002,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12대 부문·50개 과제 세부추진계획, 보도자료(2002년 12월 31일).
- 금융감독위원회, 2003,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 보도자료(2003년 1월 7일).
- 김강호·이진수, 2000, “새마을금고의 지역밀착경영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13(6, 하), pp.123-140.
- 김준경·김철용, 1992, 소영세기업의 육성과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 박원석, 1997,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범, 1995, “협동조합의 발전방향: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7(1), pp.163-184.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3, 기간 저축은행, 2003년 겨울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3, 신탁현황(주보, 2003년 2월 7일).
- 이덕훈·최범수·좌승희·설광언·김관영·김병주·이재웅·김경수·나동민·이선애·정승우·류재균·정병열, 1993,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마을금고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이종수, 2002,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연대은행의 한국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형권, 2003, “신용평점모형의 도입이 소액대출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2003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 학술발표회 논문집.

- 최진배, 2002, “지방금융 활성화 대책과 지역금융: 하나의 비판적 고찰,” *지역사회연구* 10(2), pp.115-140.
- 최진배, 2003, “우리 나라 지역금융시장과 지방은행,”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년 여름학술대회 논문집, pp.133-159.
- 한국은행, 2003a, 2002년 12월중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보도자료(2003년 1월 29일).
- 한국은행, 2003b, 최근의 지방금융경제 동향, 보도자료(2003년 2월 13일).
- 한국은행, 2003c, 2002년중 지역별 은행대출 동향, 보도자료(2003년 4월 10일).
- 한국은행, 2003d, 2003년 상반기중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동향 및 특징, 보도자료(2003년 8월 8일).
- 多胡秀人·八代恭一郎, 1999, *地域金融リテール新戦略*, 日本經濟新聞社.
- Anderson, C. L., Locker, L. and Nugent, R., 2002, “Microcredit, Social Capital, and Common Pool Resources,” *World Development* 30(1), pp.95-105.
- Angelini, P., Salvo, R. D. and Ferri, G., 1998, “Availability and Cost of Credit for Small Business: Customer Relationship and Credit Cooperativ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925-954.
- Avery, R. B., Bostic, R. W. and Samolyk, K. A., 1998, “The Role of Personal Wealth in Small Business Fin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2, pp.1019-1061.
- Banerjee, A. V., Besley, T. and Guinnane, T. W., 1994, “Thy Neighbor’s Keeper: the Design of a Credit Cooperative with Theory and Te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491-515.
- Besley, T. and Coate, S., 1995, “Group Lending, Repayment Incentives and Social Collateral,”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6, pp.1-18.
- Bhatt, N. and Tang, S. Y., 1998, “The Problem of Transaction Costs in Group-Based Microlending: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26(4), pp.623-637.
- Dell’Ariccia, G. and Marquez, R., 2001, *Flight to Quality or to Captivity?: Information and Credit Allocation*, IMF working paper.
- Fried, H. O., Lovell, C. A. K. and Yaisawarng, S., 1999, “The Impact of Mergers on Credit Union Service Provis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369-386.
- Ghatak, M., 1999, “Group Lending, Local Information and Peer Selec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0, pp.27-50.
- Ghatak, M. and Guinnane, T. W., 1999, “The Theory of Lending with Joint Liability: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0, pp.195-228.
- Hollis, A. and Sweetman, A., 1998a, “Microcredit in Prefamine Ireland,”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5, pp.347-380.
- Hollis, A. and Sweetman, A., 1998b, “Microcredit: What Can we Learn from the Past?” *World Development* 26(10), pp.1875-1891.
- Ralston, D., Wright, A. and Garden, K., 2001, “Can Mergers Ensure the Survival of Credit Unions in the Third Millenniu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5, pp.2277-2304.
- Schneider, M. and Woller, G., 2003, “Microenterprise Developmen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Developing World,” *World Development* 31(9), pp.1569-1580.
- Stanton, K., 2002, “Trends in Relationship Lending and Factors Affecting Relationship Lending Efficienc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6, pp.127-152.
- Westley, G. D. and Shaffer, S., 1999, “Credit Union Policies and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1303-1329.

Basic Operational Grounds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Pusan

Jin-Bae Choi*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yungsoong University*
(jbchoi@ks.ac.kr)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basic operational grounds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Pusan. Since 1980s many papers have discussed the issues how to develop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But they have neglected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failed to clarify their roles in the regional economy.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expels man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financial distresses from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without assessing their roles in the regional economy. This paper shows that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dispensable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especially because they can supply credit to the small firms and households which have vulnerable credit standings and are tightly constrained in their access to bank credit. This paper also examines how credit unions deal with the problems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after the collapse of solidarity.

Key Words :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formation asymmetry, Microcredit, Solidarity, Local information.